

에·너·지·지·지

**환경부
산업용 보일러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기술**

환경부는 최근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 진흥계획을 확정짓고 △10대 중장기 전략프로젝트 △Eco-Star 사업단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극대화 전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07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10대 중장기 전략프로젝트'는 미래 환경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기술(ET),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의 통합시스템기술로 3년 동안 3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산업용 보일러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기술, 생분해성 계면활성제 개발,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동시처리시스템 개발, 실내공기질 측정, 관리기술 개발 등이 포함됐으며, 3월까지 과제별 책임자를 선정해 4월부터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들어간다. 환경기술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 국가들도 21세기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유망과학기술로 선정해 아낌없이 지원하는 분야. 세계 환경산업시장은 연평균 3%대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며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유치한 중국은 시장규모가 올해 212억 달러, 오는 2010년에는 34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에 한·중 국제공동 기술개발사업과 현지설명회를 시작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환경서비스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동북아에너지협력연구
진도보고회 개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2004년도 동북아에너지협력연구 2차 사업과제 제1차 진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금까지의 진도를 과제별로 점검하고 향후의 연구방향, 연구범위, 보완계획 등을 논의함으로써 연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과제책임자 및 원내외 참여연구진,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 연구진을 비롯한 산업자원부 관계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China factor'의 동북아 에너지시장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연구(이달석 연구위원) 등 총 11개 과제에 대한 보고가 받고 과제별 전문가별 토론회를 가졌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에너지 고위경영자 과정 소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3월 중에 갖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오는 3월 24일에 개강할 예정인 제4기 에너지 고위경영자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최근 이

슈가 되고 있는 지구기후변화협약 혹은 동북아 에너지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멘트업계
페타이어 등 대체연료 개발 활발**

시멘트 업체들이 원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주원료인 유연탄을 대신하는 대체연료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쌍용양회는 페타이어를 시멘트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 지난해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서 페타이어의 열량 비중을 15%까지 높이면서 19만톤의 유연탄 수입 대체효과를 거뒀다.

동양시멘트도 산업부산물을 자원화하여 부원료 및 연료의 일부를 대체해 제조원가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동양시멘트는 정유 공장에서 나오는 최종 부산물인 페트로리움 코크와 타이어칩 고무류 등을 연료로 연간 9만 5,000톤 사용, 기존 유연탄 연료의 10%를 대체했다. 이밖에도 정수장 및 화학 전자산업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류를 연간 9만톤 정도 사용,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을 일부 대체하고 있다.

라파즈한라시멘트는 페타이어를 중심으로 한 대체연료 비중을 지난 2003년에 약 4%에서 지난해 5% 이상으로 높이면서 약 4만톤 이상의 유연탄 대체효과를 거두고 올해는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대체연료 비율을 10%까지 확대키로 한 상태다.

양회업계 관계자는 "선진국 시멘트업체들은 열량 기준 30% 까지 대체연료를 이용하고 있다"며 "폐기물 에너지 활용 증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5호기 보일러 최초점화성공**



당진화력 5호기가 보일러 최초 점화에 성공했다.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본부장 주성철)는 지난 달 15일 당진화력 5호기 보일러 최초점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보일러 최초점화는 단위기거나 시스템별 공정을 떠나 본격적인 종합 시운전 착수를 뜻하는 중요한 단계다.

이 날 5호기 보일러 최초점화식에는 주성철 당진화력본부장을 비롯해 설계용

역사인 한국전력기술, 주기기 건설공사를 담당한 두산중공업 등 협력업체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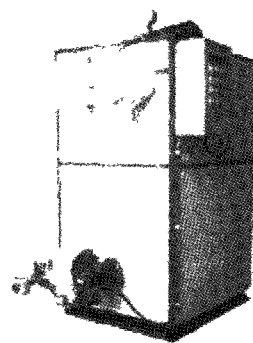
당진화력 5·6호기는 지난 2002년 9월 본관 기초굴착을 시작으로, 2003년 1월 보일러 철골입주와 7월 압력부설치를 거쳐, 2004년 8월 수전 및 수압시험을 완료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5호기 보일러 최초점화를 시행,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냄으로써 당진화력 5·6호기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당진화력 5·6호기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각각 3개월 단축된 올 9월과 내년 3월까지 준공될 예정이며, 15일 현재 약 87.7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대일보일러(주)
40만kcal/h 비닐하우스 전용보일러 출시**

산업용보일러 전문제작업체인 대일보일러(주)(대표 김경수)가 비닐하우스 및 유리온실, 육묘장 난방에 필요한 400,000kcal/hr 하우스 전용 보일러의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보급에 나섰다.

지난 2003년 창립된 신생 보일러업체인 이 회사는 입형온수보일러, 진공온수보일러, 관류보일러 등 주력 산업용보일러 이외에 틈새시장으로 농가 시설재배용 보일러를 개발하고 올해 이 분야를 집중 공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고유가 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재배 농민들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순환식 수막시스템을 보급하는 등 농가 중심의 사업을 올 주요 사업방향으로 정했다.

김경수 사장은 "하자 없는 양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제품을 공급받는 산업체나 농가 등의 발전과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승부를 걸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일은 2회로식 온수보일러, 노통연관식, 수관식보일러 등 10여종의 보일러와 판형열교환기, 온수가열탱크 등을 자체생산, 판매하고 있다.

에너지설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국내의 에너지설비 기술동향 및 정보를 모두 담았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복사하여 읽어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에너지총설'이 있습니다.

- 매년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할 때마다 고민하신 분
- 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
-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
- 에너지 경제를 연구하는 연구원, 학생, 공학 엔지니어들
-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 현장 에너지관리자 여러분들
- 기계설계사무소 여러분들

그동안 참고하신 권 없이 고민 많으셨죠?
에너지절제, 정책, 제도, 기술, 관리를 총망라한 **에너지총설**이 해결해 드립니다.

Energy Total Solutions

차재호 박사의 13명의 박사 집필

에너지총설

에너지총설

강력추천

박사(호서대학교 총장, 한국에너지연구원 이사장),
박사(포항공과대 교수), 이공계 연구원, 공무원, 학생, 일반인 등
김정철 이사장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김기현 이사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사장),
손재익 박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사장), 차재호 박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사장)

* '에너지총설'은 전국 100여개 에너지관련 기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71 507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획팀
TEL: 02-2609-6464 FAX: 02-2609-7566 E-mail: wch@energykorea.com